

코로나가 드러낸 교회와 신앙의 민낯, 정직하게 마주하고 아프게 성장할하다.

4주차

2021년 4월 26일 (월) 오후 7~9시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www.youtube.com/giyunsil

- 십자가에 못박지 못한 신앙,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 -

“ 한국교회를 죽이는 탐욕의 실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코로나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살 길은 무엇인가? ”

-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 코로나 상황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가?
코로나로 심화된 입시교육에 대한 불안이 어떻게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는가? ”

- 정병오 (서울시 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기윤실 공동대표)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cemk.org/20733)

기윤실 연속토론회는 6월, 시즌2로 돌아옵니다.

문의 김현아 사무국장

02-794-6200, cemk@hanmail.net



한국교회가 살길 : 한국교회를 죽이는 탐욕의 실상과 처방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1. 한국교회가 받는 조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존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지성인은 교회주의자라는 말로 교회의 가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취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공동체로만 생각하면 교회주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로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는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곡되어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강조할 때 교회주의자로 비판하는 것은 교회가 보여준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주의자로 인식할 수 있게끔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관계없이 교회주의자라는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이러한 조롱과 비판이 주어졌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식적인 중세 교회를 개혁하면서 내세운 것이 언행일치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존 헤세링크는 그의 책에서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강조점을 5가지로 제시합니다. "① 하나님 중심, ②성경중심, ③교회중심, ④교리와 삶의 일치, ⑤인생관과 세계관"(John Hesselink, 『개혁주의 전통』, 최덕성역, (본문과 현장, 2003), 140-167).

중세교회가 교리와 삶의 불일치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당 안은 화려하고 경건한데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원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교리를 만들어왔지만, 그 교리가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점점 이탈하였고 교회는 타락하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이러한 위기를 느낍니다. 화려한 교회당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엄청난 규모의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세가 등등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당이 가진 영광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많은 봉사를 하였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은 시대에 빛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진전시키는 일에도 기여가 있었습니다. 교육과 산업과 정치와 인권에서 교회는 최선의 역할을 하였고 소기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천만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고, 카페보다 많은 것이 교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2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80%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대꾸는 할 수 없고 듣기만 하였습니다. 소망과 사랑을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부모들은 가지 못해도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 가면 나쁜 것은 배우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살았기에 자연스럽게 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회에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실제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의 씨가 말라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보이지 않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난리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에 처한 것이 단순히 저출산과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문제가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후 변화가 진행되었던 것이 한계에 다다르자 폭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서서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올라가고 있고, 온도는 상승하고 산소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내일을 소망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다시 살피고 본래의 교회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조롱받는 근저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하였고, 조롱받게 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를 비추고 있습니다. 탐욕을 죽이는 일이 한국교회가 살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탐욕과의 싸움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2. 한국교회의 성장기

탐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문제는 탐욕의 실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갈 길이 참으로 험하고 멀니다. 탐욕의 실체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진단하는 것이고 회복의 답을 찾는 시발점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선교 역사상 가장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정착하고 자립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노회가 세워지고 총회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진 후에 선교사들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더이상 피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적인 격변 속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18세기 실학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19세기 시대의 변화 속에 세워졌습니다. 근대가 열리는 시점에 한국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격변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침탈되는 상황속에서 교회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신학문을 소개하여 여성의 위치를 높였습니다. 지성인들을 깨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잘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의 위대한 예술가들과 교육가들이 다 선교사를 통하여 들어온 신학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평양의 숭실학교, 서울의 연세학당,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은 선교사들의 수고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승화시키고 독립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질 수 있었던 만주의 명동학교 등 모두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교회를 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무시하지만 역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방 공간의 김구, 이승만, 여운형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독립의 장소가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새 시대를 향한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이라는 끔찍한 민족의 슬픔이 해방의 기쁨을 다 앗아 갔지만 교회는 전쟁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60년대 보릿고개를 넘고, 산업화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는 백성들의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이겨내는 일에 교회는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과 반공을 무장하였습니다. 교회는 격동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군사정권의 시대에 민주화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민주화는 생각할 수 없음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80-90년대의 교회는 새로운 전환기였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 갑니다. 예배당 건물이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자들이 채워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자를 가진 교회가 한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비전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교육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수양원을 짓기 위하여 마구잡이로 땅을 사들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교회는 부동산 측면에서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신학생들은 계속하여 지원하였고,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개척교회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호황이었습니다.

잠시 한국교회의 모습을 스케치해보았습니다. 근현대의 한국교회는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막만 세워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볼

때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소명 앞에 교회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이 점점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 한국교회 직면하기

첫째 한국교회 성장이 보여준 허상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세계 교회가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성장 신화가 허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복음과 함께 하는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복적 성장이었습니다. 삼박자 축복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본성에 잘 부합하였습니다. 기복적 신앙에 교회가 옷을 잘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하였습니다. 부자만 되면, 권력만 가지면, 성공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점점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숨 쉴 공간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게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에 생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들이 힘들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비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등장했습니다. 순간 교회를 향한 숨 막히는 소리가 언론을 통해 등장했습니다. 소망의 상징이었던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의 내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장이 허상은 아니었는가? 한국교회의 성장은 복음을 통한 부흥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충동한 성장이었는가? 회심과 회개를 통한 거룩한 삶이 보이지 않고 오직 외적으로 화려한 건물이 세워지고, 사회에서 기득권의 소유를 통하여 세력을 확장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냉엄한 평가는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우리 시대가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자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소리를 냅니다. 기윤실이 행하고 있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보면 본래의 교회,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교회를 요구합니다. 그 증거로 교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에 감동이 없고, 실망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외적인 모습은 내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는데 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가 복음을 통한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을 통한 부흥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현실과 손을 잡고

물질적인 자립만 강조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세적 축복으로 교세를 확장한 것은 아닐까요? 전쟁 이후의 한국사회는 보이는 소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틈새를 정확하게 장악하였습니다. 각종 부흥회가 유행하였던 시절의 핵심 주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의 이름이 “축복 대성회”였습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면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박자 축복은 생수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의 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환경은 이러한 좋은 소리,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특별히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스위치만 켜면 어디서든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교회가 소중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장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자”는 구호는 대부분의 교회가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복음 전도는 회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마케팅이 사용되었습니다. 온갖 이름의 전도법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성장을 위하여 정말 수고를 하였습니다. 30년 정도 신앙 생활하였으면 안 해본 전도 훈련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방법은 한국교회를 떠나서 세계로 수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형교회들이 한국교회의 교회성장론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수입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지 않고, 회심이 강조되지 않은 교회의 성장은 그 내리막길이 무섭습니다. 코로나 19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단지 교회로 모이게 하여 기복의 주사를 주입한 것은 잠깐의 효과는 있지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장이라는 탐욕은 한국교회를 높여주게 하였지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다시금 돌아보고 본래의 교회로의 회복을 감행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남겨주었던 신앙, 초기선교사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흥이 아닌 단지 교회당 커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 성장은 멈춰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행2:47]. 탐욕으로서의 성장이 아니라 선물로서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탐욕의 세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탐욕의 세습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탐욕을 설명할 때 세습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습이 보여주는 탐욕이 참으로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세습은 한국교회의 거룩성은 갈가리 찢어냈습니다. 세습은 목회의 소명을 세속화 시켰습니다. 소명의 세속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명의 세속화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만들어 낸 상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목회의 세속화는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목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목회의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고,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정적 자립이 되고, 넉넉한 사례비를 받고, 노후가 보장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치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파트 장만하고, 자녀들 잘되고, 노후 보장을 준비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사에 나타난 영적 지도자들의 삶과는 하나도 닮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정치도 성공한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성공한 사람들이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결국 목회의 성공은 거대한 교회와 권력과 부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세습은 이 성공을 대를 이어 가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를 이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 자체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목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유독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누리는 길이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목회의 노후가 세상 보기에 넉넉해야 성공한 목회를 한 것이고, 삶이 핍절하면 실패한 목회입니까? 목회의 판단이 노후의 보장으로 결정된다면 것처럼 추악한 것은 없습니다. 목회의 소명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소명의 완수만 있습니다. 소명을 감당하였다면 그것으로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의 보장이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다. 목회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충성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이라는 세속적 패러다임이 세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맨땅에서 개척하여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일가를 이뤘기에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화 있을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목회가 대를 이어 가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대를 이은 목회가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나타내려면 어떠한 정치적 욕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법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때 그나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맡은 소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부와 권력의 세습이 법적으로 통제될 때 대를 이은 목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뤄지기에는 참으로 험난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이 신자의 삶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성공한 신자가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을 헌금으로 판단합니다. 헌상이 아니라 헌금입니다. 헌상은 예물을 비롯한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음을 고백하고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헌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지점은 헌상중 헌금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부는 소유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용의 많고 적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세속적인 개념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소유하였는지가 신앙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하기 위하여 신자들도 온 힘을 다하여 매진합니다.

부동산의 문제에서 신자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은 소수의 탐욕으로 다수가 고통 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일용한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고, 부와 권력이 주어질 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신자만이 참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자로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보내야 합니다.

신자의 성공은 서로 짐을 지는 일을 잘 수행함에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일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음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수중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야 합니다. 장기려 박사의 삶은 우리에게 성공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삶에 무엇을 남겼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생각할 것입니다.

탐욕을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세습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거룩한 유산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나눔입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끝까지 보여줄 때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탐욕을 추구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세속화된 신자의 축복입니다. 한때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50쇄 이상을 찍었습니다. 이 책에는 온갖 세속적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이 주는 모습보다는 대부분 물질적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 기업체에서도 교양서로 읽어졌던 책입니다. 아마 기독교의 이름으로 쓴 책이 일반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은 “긍정의 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책에 현혹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쓰레기를 먹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트렸습니다. 신자의 성공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긍정적일 때 물질적 축복을 받고, 세상에 땡땡거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동일한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통에는 온갖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쓸모없어서 버리는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은 스스로 질병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을 통한 신자의

복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과 교회는 복 있는 삶에 대하여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긍정의 힘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긍정의 힘은 세속화된 축복, 타락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된 축복이 보여주는 핵심은 철저하게 mammon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철저하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기업은 부자 되게 해주는 곳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성공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좋은 신앙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외인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사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교회는 침묵하였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자신이 범죄 하였으면 자신의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회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세속화된 성공은 결국 세속화된 교회와 목사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은 돈 잘 버는 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단지 이익을 창출과 성공에만 있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은 관계하지 않고 단지 이익을 창출하여 세상에 이름을 높이고, 좋은 집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성공을 격려하였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쓴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협력했습니다. 자연히 직분자들에게 기댄 것은 물질적인 헌신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른이 존재하지 않고, 부자만 존재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짐을 지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입니다. 신자의 성공은 자신의 부와 명예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일용한 양식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신의 배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사회적 환원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성공한 신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맨발의 전도자란 불린 만교 최춘선 목사와 가난한 자들의 의사였던 성산 장기려 장로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환원하였던 귀한 선배들입니다. 모두가 이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지만, 신자의 성공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신자의 성공은 부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권력의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신자의 성공은 서로 짐을 지는 삶에 있습니다. 더 많은 짐을 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게으를 수 없고, 사치와 허영에 빠질 수 없습니다.

신자의 축복, 신자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으므로 인정받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눅12:15]. 또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눠주시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 12:33]"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첫 믿음을 가졌던 초대 교부들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부의 목적에 대하여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의 목적은 자족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코이노니아-사치스러움을 탐닉하는 소수의 부자와 빈곤 가운데 노동하는 수많은 사람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는 동등한 교제-를 촉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자족과 코이노니아 즉 서로 나눔을 위하여 하나님은 신자에게 재산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것도 강도 행위이자, 탐욕이며 도둑질이다(크리소스톰);" "너는 넓은 거실을 자랑하느냐? 그것들로 인해 너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암브로시우스)" "누가 탐욕스러운 자인가? 자족할 만큼 충분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이다. 너는 도둑이 아니냐? 너는 나누어 주라고 받은 것을 너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자가 아니냐(대 바실)" 첫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자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교회는 세워졌고, 하늘의 별과 같이 역사 가운데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신자의 성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져 가는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서 일어난 우상숭배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게 아픈 생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악성 종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암묵적 우상숭배는 탐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성공도 함께 하였습니다. 옛날 군대에서는 장군을 달려면 교회 다녀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에는 씁쓸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가 회자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교회는 인재들과 함께 중산층 교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사라진 것은 한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잘 돌보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중산층이 되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없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중산층화와 교회당의 건축과 대형화를 통하여 나타난 한국교회의 민낯이 보여졌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당 건축의 현장에서 교회의 부정직은 자주 회자 되었습니다. 교회가 벌이는 리베이트는 자주 소문이 났습니다. 적어도 교회 건축의 현장에서 교회의 정직성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일어난 직분 매매의 현장은 참으로 심각하였습니다. 교회당을 짓기 위하여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분이 매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부흥회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교회 성장기에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돈이 오고 갔습니다.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직분자가 되고, 없으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러한 유혹에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매력때입니다. 봉사직의 개념이 아닌 권력과 계급이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직분 매매는 성행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한 목사들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였습니다. 일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회나 총회의 정치에 있어서 여전히 금권선거나 이뤄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회나 총회 정치에 이르려면은 돈의 장벽이 엄청납니다. 지금 같은 시대라면 베드로와 바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총회장이 되는 일에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권력을 향한 돌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는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력욕이 된다면 참으로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고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묵적으로 동참합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깨내어 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갑니다.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소아시아지역의 일곱교회의 위상은 대단하였지만 지금 유적지로만 남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멈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4. 정직한 답 찾기

한국교회의 현실을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한국교회 성장이 보여준 허상입니다. 둘째 탐욕의 세습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화된 신자의 성공, 신자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암묵적 우상숭배입니다.

한국교회가 살길은 진단에 대한 바른 처방입니다.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치료를 잘하면 다시금 새 살이 돋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직한 처방, 정직한 답을 찾는 일입니다. 정직한 처방의 시작은 성경의 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경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를 철저히 매여 놓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본래의 교회, 본래의 복음, 본래의 성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는 세상에 정직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가졌다고 말합니다[딤후 3:15-16].

첫째 교회의 가족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알고 소통합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의미는 서로를 안다는 의미가 함의됩니다. 한집에 살아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의 적정성이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 형제가 서로의 얼굴을 알고, 그 마음을 공유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인격적 대면성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교회의 가족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교회의 성장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위기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한국교회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만남은 강조되었는지 모르지만, 가족의 관계는 빈약합니다. 한때 제자훈련과 소그룹이 가족성을 회복하는 대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교회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로 전략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존재하려면 교회의 가족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생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어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에 인내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낳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잃은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당장 화려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으나 다음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권력과 mammon의 세습으로 인하여 생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혈압이 50이하로 떨어지면 죽음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살아 있지만 기능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권력 욕망과 mammon을 향한 우상숭배는 외적으로 기능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혈압 50이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은 다 압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음식을 끝까지 섭취합니다. 한국교회가 권력 세습과 mammon을 숭배하는 욕망은 뱉어내고, 본래의 양식인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먹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의 책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성입니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비밀은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이 비밀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전파해야 합니다.

본래의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옮기십니다[계2:5]. 소음만 나는

교회를 나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팽과리는 시끄럽기만 합니다[고전 13:1]. 다른 무엇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본래의 교회는 이렇듯 복음을 소유하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넷째 신앙의 기초성을 견고하게 다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고 기둥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듯이, 신앙의 중심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을 벗겨내야 합니다. 여전히 세속적 세계관인 입신양명을 위하여 신앙하고 기도하는 초등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죽을 먹고 있는 신자들을 봅니다. 여전히 이방인이 원하는 것에 매달려 신앙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핑 잡는 게 매라고 오직 성장한 교회, 성장 시킨 목사, 성공한 신자이면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견고한 세계관에 의하여 잡혀 먹힙니다. 세속적 세계관에 먹잇감이 되어있는 신자는 세찬 바람이 제대로 불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초를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고백을 확인한 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고백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다섯째 교회 직분자들의 소명의식 재고입니다. 교회는 직분 받은 성도와 일반 성도로 존재합니다. 직분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채택한 권사입니다. 한국교회는 직분자들이 자신의 소명을 확고히 하느냐에 따라 그 건강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점차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운영이 직분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이때 직분자들이 가진 영적인 권위와 존경심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기득권이 생기면서 소명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인 교회 성장주의, 교회의 권력세습, 직분자들의 각종 범죄 등입니다. 탈세와 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법원에 들어가는 직분자들을 봅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성범죄와 물질에 관련된 각종 죄는 직분을 받은 이유를 상실하게 합니다.

소명 없이 비즈니스와 명예로 받은 직분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불편을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의 청빈함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권력과 탐욕이 강렬하다면 소명을 살펴보고, 목사의 길을 재고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로와 집사 등의 직분자들도 자신의 소명을 바르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지혜와 헌신이 필요하겠지만 직분에 대한 정직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건강하고 소명이 분명할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교단이 가진 권징 절차의 정직한 시행입니다. 교회의 표지 가운데 권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 남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징을 통하여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장치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징의 세부적인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측면은 선명한데 윤리적인 측면은 빈약합니다. 그래서 윤리강령을 제정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윤리강령을 가진 교단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단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세부 강령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윤리강령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사회는 점점 투명하고 윤리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모습에서 매우 뒤처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단이 앞장서고 노회가 준비하고 교회가 시행할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교회로서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만도 못한 교회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윤리적인 측면을 바르게 정립하고 교회를 교회로 남게 하는 결정이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얼마 전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직원들의 월급은 삭감하면서 재벌 회장의 월급은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교회에서 본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대항과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주신 것은 서로 짐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배를 채웁니다.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 앞에는 수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옮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길은 우리의 문제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탐욕과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였다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실}

교육이란 이름의 욕망, 한국 교회의 현실과 나아갈 길

정병오

(오디세이학교 교사, 기윤실 공동대표)

1. IM선교회가 보여준 '교육'과 '신앙'으로 포장된 기독교인 욕망의 민낯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1년 1월 IM선교회 발 집 단감염이 대전과 광주 등지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았다. IM선교회는 대전 IEM 국제학교, 광주 TCS 국제학교를 비롯해 전국 11개 사도에 비인가 교육시설 23곳과 연구소 17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시설에서 총 340명이 확진되었다.

IM선교회 관련 대안학교 소속 학생은 3년 전에 50여 명 정도 되었는데 최근 500 명이 넘는 규모로 급성장을 했다고 한다. IM선교회 소속 대안학교들이 이렇게 급성장을 한 것은 이 학교가 기숙형 스파르타식 방식으로 영어와 공부를 시켜 국내 상위권 대학과 미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시킨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신앙과 예배 훈련도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여 신앙의 기본 틀을 잡아준다고 홍보한 것이 부모들과 목회자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이 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 목사의 강연 내용이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한국사 캠프하고, 그 다음에 영어 캠프하고 등등. 잡히는 족족 토플, 토익, IELTS 등 하여튼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교육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여서 아침에 예배하고 공부하고, 점심에 예배하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번 예배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IM선교회 교육은 초중고 12년을 6년 만에 끝낸다. 한 달 내내 하루 5-6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

부모님들이 수련회라고 하면 안 보내주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수시 캠프를 해요. 수능 캠프도 해요. 가격도 100만 원이야. 어디 다른데 보내는 것보다 낫거든요. 우리 아이들 550명 중 조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자기주도형이에요. 애들이 기도를 시작하며 부르짖어요. 찬양도 애들이 해요. 여러분 생각에 애들 공부할 것 같죠? 10명 중 6명이 인(in)서울 합니다. 세계 랭킹 100대 안의 대학에 들어갑니다. 미국 대학은 활동 잘 하는 거 보거든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2016년 실시한 기독교대안학교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독교대안학교는 265 곳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학교가 미인가 학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내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국제' '글로벌' '리더' '인재' 등을 교육목표로 내세운 것을 볼 때 IM선교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드러났을 뿐 IM선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목표 분석

분류	단어	학교수	
기독교성	하나님	36	40.9%
	예수, 그리스도	18	20.5%
	기독교	17	19.3%
	영성	13	14.8%
	신앙	11	12.5%
	기독교 또는 성경적 세계관	8	9.1%
	제자	7	8.0%
국제성 수월성	리더, 인재, 지도자	36	40.9%
	글로벌, 국제, 월드, 세계, 열방	25	28.4%
	실력	15	17.0%
	비전	9	10.2%
인성	인성, 인격, 품성	22	25.0%
	섬기는, 섬김	21	23.9%
	사랑	17	19.3%
	공동체	7	8.0%
특성화	학교의 특징 반영	15	17.0%

출처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2012), 『2012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와 발전과제 모색』

물론 IM선교회가 주관하는 학교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 비해 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치열한 입시경쟁교육 가운데서 자녀가 남들보다 앞서게 하기 위해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거나 혹은 신앙을 입시경쟁교육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세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 동안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추구하던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명예 등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하나님이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는 것을 믿기에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명예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여길 뿐이다.

하지만 성도도 육체를 입고, 가족을 부양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신으로 섬기고 권력으로 주변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돈과 권력을 더 잘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

으려는 욕망과 날마다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성도됨의 본질인 것이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 모순과 고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두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교육 문제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한국 교회의 신앙적 현주소를 살펴 보려고 한다.

2. 한국 근대 교육의 역사와 기독교 교육의 실패

한국은 오랫동안 출세와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 개념이 지배해온 나라다. 삼국시대 부터 한국을 지배해온 유교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가치관은 고려시대 이후에는 과거 시험의 도입 과 함께 제도화가 되면서 한국인의 교육관을 지배해왔다. 즉, 열심히 글을 읽고 학문을 연마하지만 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높여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연마하더라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한국의 교육관은 조선 말 선교사들에 의한 근대 교육이 들어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근대 학교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세상을 폭넓게 배우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세상을 섬기도록 교육하는 '기독교적 전인교육'을 펼쳐갔다. 이는 근대교육을 단지 유교 대신 영어를 배워 출세하는 곳으로 생각하던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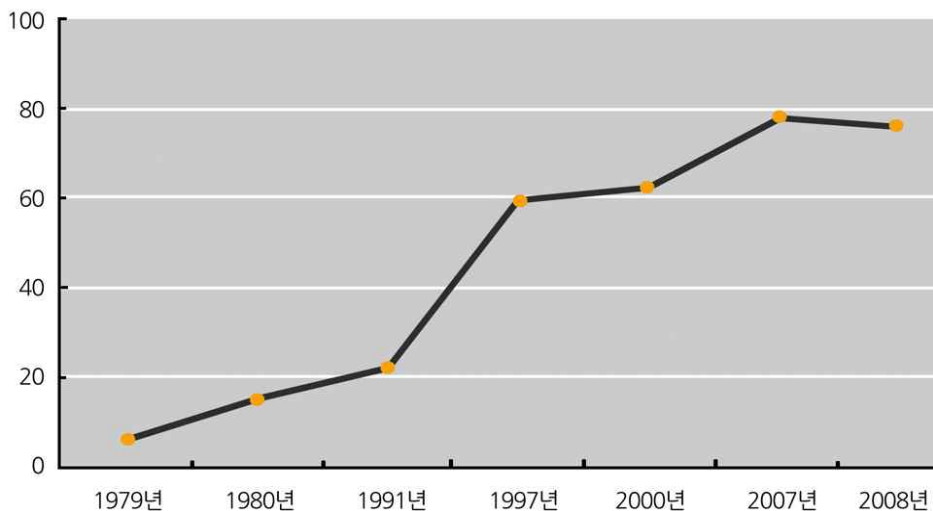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근대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그들은 '기독교적 전인교육'을 통해 세상을 보는 넓은 안목을 가진 개화된 지식인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신분제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새로운 중상류 계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 갇힌 한국 교육을 '발견과 발굴'이라는 기독교적 교육관으로 바꾸는데 앞장서기보다는 '선발과 배제'의 전통적 교육관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내 자식이 '선발'의 대열에 서도록 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이렇게 함으로 '발견과 발굴'이라는 기독교 교육관으로 '선발과 배제'의 한국 전통적 교육관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하지만 해방 후 한국 사회가 개발의 도상에 있고, 사회적인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1980년대까지는 교회가 가진 문화적 힘으로 사회에 기여도 하고 교회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입시교육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토요일 오후와 주일에 교회를 찾아 교회 활동을 통해 입시 교육 이외 다른 분야에서의 교육적 욕구와 전인적 성장을 추구했다. 교회에는 서구 교회에서 들어온 다양한 음악이 있었고, 학생들의 자치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기획할

동이 있었고, '문학의 밤' 등을 통한 인문적인 소양과 다양한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가 기독교인이 아닌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자녀 교육을 위해 일부러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19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경제 개발기에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면서 사회적 계층 이동도 적어지기 시작했다. 교육을 통한 "개천에서 용 나는" 신화도 새로운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개천에서 용이 된 세대가 자기 자녀를 용으로 키우기 위해 한강에 독을 막고 양식을 시작한 것이다. 기업화된 사교육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전두환 군부정권이 실시한 과외금지 조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여 1991년에 초중고 학생의 방학 기간 학원 수강이 허용되고, 1995년에 학기 중 학원 수강 허용으로, 그리고 2000년 헌재에서 과외금지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사교육 시장을 향한 족쇄는 완전히 풀려진다. 여기에 더하여 2000년 들어 특목고 입시와 영어 조기교육 열풍이 불면서 사교육은 중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단계까지 일상화된다. 사회적으로는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1980년대 생 이후 가정 당 한두 명의 자녀만 됨으로 인해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사교육 참여 현황 추이



자료: '사교육-현상과 대응' (이종재, 2010)

1990년대 이후 학원 중심으로 기업화된 사교육은 우리 교육과 사회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와 저녁에 학원에 가서 밤늦게까지 교육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15-24세 학생들의 OECD 평균 주당 학습시간이 33.9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49.4시간으로 15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만 따지면 중학생은 57.4 시간, 일반고 학생은 70.1 시간, 특목고 학생은 89.8 시간으로 나타나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원 시스템은 평일 뿐 아니라 주말까지 점령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요일에도 학원에 다니는 경우(매주와 가끔을 포함)는 중학생은 49%, 일반고 학생의 경우 71%,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의 경우 75%로 나타났다. '매주 다닌다.'의 경우는 중학생은 11%, 일반고 학생은 39%,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은 54%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원의 이중생활에 지치고 여유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신앙교육이나 교회활동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회는 학생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신앙교육 시간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주일에도 학원에 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나마 최소화된 주일 예배와 신앙 교육 시간조차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을 정도 신앙 전승의 실패 상황을 맞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 "개천에서 용이 된" 부모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방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에 매진할 때 기독교 신앙에 기반 한 좋은 품성과 삶의 자세, 또 교회가 가졌던 자율성과 전인교육의 영향으로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렸다. 세상이 아무리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새로운 세습중산층의 시대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지 못한 것이다. 그보다는 내 자녀가 이 세상의 경쟁에서 뒤쳐져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세상적인 근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 경쟁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적인 무기를 쥐어주기에 바빴던 것이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주도했던 현 장년 세대의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로 포장을 한다 해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 뿐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도 진정한 주인인가를 묻는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내 자녀가 세상의 경쟁에서 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예배자로서의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디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2020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2021년 한 해 동안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2년이 되면 2019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교회교육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입시경쟁체제의 거센 압박 가운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각 교회별로 온라인 예배와 성경공부, 전화 상담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이후 온라인에 익숙된 아이들을 어떻게 오프라인 예배와 교제로 끌어낼 것이며, 또 영적인 연결망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 교육은 꺼져가는 교회교육의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과 더불어 그 동안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모순과 정면으로 부딪혀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최소한의 교회교육의 맥까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히려 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전통적 출세교육, 선발과 배제의 교육관을 말씀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성경적 교육관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성적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의 원리를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서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사회에 실현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일을 목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의 교육관이 기독교적 '발견과 발굴'의 교육관이 아닌 '선발과 배제'라는 전통적 교육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교육관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치관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삶이 영원이 아니라 현세에 더 매여 있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 그 삶의 더 큰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왜곡된 교육관과 정면으로 부딪혀 싸움을 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왜곡된 신앙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큰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싸움을 기뻐하시고 이 싸움 가운데 역사하실진대 한국 교회는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될 경우 성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선 부모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 낙오하거나 그로 인해 부모도 함께 실패한 인생으로 판단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책임지고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에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살아나게 되면 그 동안 힘든 여건 가운데서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떠안아야 했던 교회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본적인 신앙교육이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교회교육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또래나 선후배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신앙에 기반 하여 고민을 나누며 세상을 섬기며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성경공부와 세상읽기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강단과 목회 활동을 통해 왜곡된 교육관과의 싸움이 선포되고 이것이 성도의 가정 가운데서 교육적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일반 교육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반인들도 현재 자신들이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무한경쟁교육이 잘못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 이를 멈출 능력이 없기에 마지못해 따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된 자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육의 본질을 따라 담대하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볼 때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신앙과 관계없이 기독교적 교육관을 본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독교적 교육관에 기반 해서 전체 교육의 틀을 바꾸는 흐름에 참여하고 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우리나라 교육 가운데서 실제로 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2천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히 종교개혁 이후 500년 역사 가운데서 여러 시대 여러 영역에서 기독교가 해왔던 역할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무한경쟁으로 달려가는 한국 교육과 이 가운데 고사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절망의 상황에서 다른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교회가 성경적 교육관을 회복하는 이 일에 매진할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실